

오일장 서는 천제연, 활력 더할 묘수는

관광공사, 서귀포시에 공원 무상 양여... 이전 속도
침체 시장 활성화 취지 살릴 건축물 활용방안 요구

서귀포시가 지난 6월 중문관광단지 내 천제연공원 부지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무상양여받으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중문오일시장의 공원 내 이전이 탄력받게 됐는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만족도도 끌어올릴 수 있는 총체적인 공간활용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천제연공원 2만8530㎡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천제연공원 부지는 중문마을 회의 요청에 따라 시가 침체된 중문오일장 이설을 추진해온 곳으로, 시는 관광공사의 자산이지만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익목적의 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무상귀속해야 하는 부지임을 확인하고 무상양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관광공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

을 고수하던 공사는 지적공부상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단지 내 폐지된 옛도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천제연공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중문오일장 이설을 위한 첫 단추인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는 지난달 중문관광단지내 휴양·문화시설내 향토오일시장을 추가하는 유원지변경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또 연말까지 천제연 난대림 문화재청 심의와 중문오일장 실사용역·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말까지 중문오일장을 이설한다는 구상이다. 중문오일장이 이전될 건축물은 4000㎡ 규모의 1층으로 신축하고, 건물 옥상에는 옥외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시는 현재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

하지만 중문오일장은 닷새 간격으로 3, 8일에만 열리면서 그 외의 기간에 오일장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오일장 이설사업과 병행해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일장이설 취지도 유동인구가 많은 중문단지로 옮겨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문오일장을 이설한 곳은 연간 56만여명이 찾는 천제연폭포와 주상절리대가 인접하고 교통여건도 좋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거기다 빈약한 야간관광 인프라는 서귀포시의 해묵은 숙제여서 이와 맞물린 검토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문오일장이 이전을 추진하면서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적잖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동부공원 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택지개발 빙자한 난개발 멈춰야”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에
대책위, 녹지 보존 등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을 앞둔 제주시 화북동 소재 도시공원인 동부공원에 1780여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토지주 및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개발행위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과연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에서 이를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

중단, 삼화지구 내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 현 상태 보존, 지정고시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제주도에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동부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공원을 보존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짓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오은지기자

조천 청소년 위한 문화의집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예정

제주시는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설계 및 각종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7일 착공했다.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은 조천읍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천지역 청소년들이 정보, 문화, 예술 등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상 3층에 걸쳐 필요시설과 설비를 갖춘은 물론 청소년들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천읍사무소와 인접해 설치한다. 시설은 부지 1095㎡, 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845.67㎡로, 총 공사비는 22억원이다. 주요 시설로는 밴드 연습실,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자치활동실, 동아리방을 비롯해 최근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높은 VR 및 3D체험실,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방송체험실 등이 조성된다.

제주시는 지역 내 읍·면·동 26곳에 청소년문화의집 11개소를 설치해 전국 평균(7.1%)보다 높은 설치율(42.3%)을 보이고 있다. 향후 청소년문화의집이 부재한 15개 읍·면·동에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형동에 건립할 예정이다.

고대로지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지역 내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충전 희망나들이’ . 사진=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제공

노년 행복 찾는 희망나들이
서부보건소, 내달까지 운영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지역 내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행복충전 희망나들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신체적 유연성 향상과 주체적인 건강관리 생활화로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오는 9월까지 주 2회 총 11회 차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내용은 실버요가, 웃음치료, 원예요법, 제과제빵 체험 등의 건강교육과 함께 서귀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우울증의 원인과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오재복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기력감 극복 및 자존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242), 이태윤기자

“제주광어, 해외시장 공략? 국제 인증부터”

제주연구원, 양식산업 분석 통해 발전방향 제언
수산물 인증 ASC 획득·6차산업화 필요성 강조

제주 광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식산업 차별화 및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제적 수산물 인증인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획득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13일 정책과제로 수행된 ‘제주지역 광어 양식산업의 실태와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광어 양식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6가지 발전방향을 제언했다.

저소득가구에 냉방비 지원

서귀포시는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폐지 좁는 저소득층 21가구에 각각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획득 필요성이 제기된 ASC 인증은 세계자연보호 기금과 네덜란드의 지속가능무역 이니셔티브에서 2010년 설립해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과밀화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산물 양식 인증이다.

연구자는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추진시 인증받은 수산물만을 취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향후 판로 확대나 시장가격 상승 측면에서 시에 따르면 지원 가구는 폐지 좁는 저소득 40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등 정부와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13일까지 개인계좌로 지급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냉방비 지원은

제주광어를 대상으로 ASC 인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남 완도군은 전복을 대상으로 ASC인증을 획득했으며, 해조류를 대상으로 ASC-MSC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어 양식업체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환경 내성에 강한 품종 개발이 필요하며, 광어 가공·유통센터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 및 제품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묵 선물세트 외 1인용 포장밥, 회덮밥, 초밥, 파스타, 스테이크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봉개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 1992년 8월~현재 27년간 제주의 쓰레기 처리
북부소각장 2003년 4월 3일 사용개시(16년)
3번의 연장(2011년, 2016년, 2018년) 운영



봉개동쓰레기매립장 8월 19일 부터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함을 알립니다.

봉개동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지 만적으로 종료되어 최종복토를 시행해야 함에도 현재 압축쓰레기 6만8천개, 폐목재 2만7천 톤 야적, 야적된 압축쓰레기와 폐목재로 인해 2차 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압축쓰레기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하여 국내·외적 망신과 그 처리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쓰레기 대란 발생은 막아야 한다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봉개동 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폐기물처리시설 이설을 미루는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약속을 받고 체결한 협약은 1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실패와 땀질식 쓰레기정책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도지사, 시장, 주민대표가 서명하여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2019년 8월 19일부터 매립장,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면 반입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14일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